

경/영/전/략

종업원들의 충성도 하락,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평생직장의 퇴조

직장인들 누구나 마음속에 사표 한 장쯤은 품고 산다는 말처럼 회사에 대한 직장인들의 충성심은 맹목적이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IMF위기 이후 평생직장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면서 종업원들의 충성심이 과거만 못하다고 한다. 종업원들의 충성도 하락 현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멈출 수 있을까?

이기심(Selfishness)을 살펴보자

미국 포드자동차의 창업자 헨리 포드(Henry Ford)는 “단지 같이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같이 지속하는 것은 진보에 머물고, 같이 호흡을 맞춰 일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이다”라고 하면서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의 파트너십 관계를 중시한 기업가이다. 과거 세대와 요즘 세대간에 직장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자신의 삶과 일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은 변함이 없다는 인간의 심리를 헨리 포드는 1930년대 이미 직시한 것이다.

■ ■ ■

경영학의 구루(guru) 톰 피터스(Tom Peters)는 『The Brand Called You』(당신이 바로 브랜드)에서 회사에 대한 종업원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을 기대하지 말고 종업원들의 튀고자 하는 이기심을 최대한 살려 Win-Win하라고 한다. 동료나 고객과의 관계 또는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ME Inc.)’라는 기업을 경영케 함으로써 다수의 나(ME)가 모인 기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 김수진 수석연구원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문제를 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가’로 끝나는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 아빠인가

금/융/외/환

북한 핵실험과 금융시장의 반응

핵실험 당일 반응 점차 약화

세 차례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10월 9일 주가가 2.41% 하락하고 환율은 1.56% 상승하였으나, 2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9년 5월 25일에는 그 변동폭이 1%에도 못 미쳤다. 그리고 이번 3차 핵실험 당일에는 주가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마저 나타났다.

차익실현(Profit-taking)

금융시장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예고된 이후 25일간 시기와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는 2.3% 하락하고, 하락세를 보이던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2.4% 상승하고 있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핵실험에 대해 원화를 short-position으로 베팅하다가 핵실험 당일에 차익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반응이 평온하였다고 안심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북한 핵실험과 금융시장의 반응

	일자	코스피지수	전일대비증감 (등락률)	원/달러환율(원)	전일대비증감 (등락률)
1차 핵실험	2006년 10.9(월)	1352.00(전일) → 1319.40(당일) 1356.72(1주일후)	-32.60 (-2.41%)	949.10(전일) → 963.90(당일) 955.50(1주일후)	+14.80 (1.56%)
2차 핵실험	2009년 5.25(월)	1403.75(전일) → 1400.90(당일) 1415.10(1주일후)	-2.85 (-0.20%)	1246.50(전일) → 1253.00(당일) 1233.50(1주일후)	+6.50 (0.52%)
3차 핵실험	2013년 2.12(화)	1950.90(전일) → 1945.79(당일)	-5.11 (-0.26%)	1095.70(전일) → 1090.80(당일)	-4.90 (-0.45%)

강태훈 수석연구원

[토빈세(Tobin tax)]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일종의 금융거래세로, 핫머니(국제 투기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환율 급등락을 막고자 고안된 방안임. 이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환투기를 제어하고자 국제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서 유래함.

경/제/일/반

경로의존성의 단상

동전 톱니의 유래

18세기 은화를 사용하던 시절에 사람들은 은화 가장자리를 조금씩 긁어내고 함량이 줄어든 동전을 유통시켰다. 온전한 화폐는 따로 보관하였기 때문에 시중에는 결국 함량이 모자란 동전만 유통되었다(그레샴의 법칙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전 가장자리에 톱니모양을 만들었는데 그 관행이 지금까지 필요성과 상관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면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라고 한다.

취업준비를 위한 스펙쌓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 1인당 사교육에 쓴 돈이 월평균 32만 1천원으로 2011년보다 연간 백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월평균 생활비가 38만 4천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금액이다. 취업준비생이 나만의 무엇을 만들기보다는 토플, 각종자격증은 기본이라는 취업준비 방식에 고민없이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북한 핵실험과 화장품 폭탄세일

지난 12일 오전 11시 57분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6년과 2009년에 이은 세 번째 핵실험이었다. 그날 오후 국내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에서 화장품회사의 폭탄세일 소식이 북한 핵실험 소식을 앞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의 생각이 과거의 경로에 따라 고착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백충기 수석연구원

[훌륭한 연설을 하려면]



먼저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인사말**을 적어라.
그 다음 사람들이 실천하고 싶도록 만드는 **극적인 결론과 맺음말**을 적어라.
그리고 가능한 한 그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본문을 적어나가라.

- 존 맥스웰의 『리더의 조건』 중에서 -